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2014년 4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의인들의 운명

(지혜 3, 1-8)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1절과 2절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당신을 닮아가도록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 주님,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뜻에 순명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지혜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겪은 어려움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선택의 순간에 내 뜻보다 하느님의 뜻을 따랐던 적이 있는지 나누어 보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얻게 된 것이나 감사할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 보고, 착하게 살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을 살다보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축복과 행복을 더 누리는 것 같고 평생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손해만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들조차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남들 하

는 것처럼 적당히 법도 어기고 부정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싶은 유혹도 생깁니다. 이런 생각에 지혜서의 저자는 일침을 가합니다. 지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하느님 곁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심판 날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의인들의 생명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곁에서 영원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지속된다는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그들의 못된 행실로써 이미 영원한 삶을 포기한 것이기에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신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순과 불의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확신. 비록 지금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실 날 우리들의 삶을 심판해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궁 금 했 어 요

독서 후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낭독 후에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구세주를 보내시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에 의해서 격상될 인간의 신분과 달라질 인간의 삶을 때로는 날카롭고 때론 가슴 아리게 들려주지요.

한편 신약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언합니다. 하느님의 구속 사업의 완성,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아 세상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전례 중에 봉독되는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을 거둬 들려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해방을 만끽하도록 하는데요. 예수님에 의해 하느님의 자녀로써 삶이 새로워진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는 알렐루야로 환호하며 일어선 자세로 전례를 행합니다. 이로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를 표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똑같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구약성경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감사로 고백하며 경청하도록 권합니다. 비록 독서 말씀에 들어서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말씀은 모두 진리이니 새겨들어야 마땅합니다.

형제님 함께 해요!

용원성당 1구역 2반 반장
이정옥 로마나

† 찬미예수님

저희 용원 성당은 창원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공단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유동신자가 많아 본당으로 승격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새 성전을 건립하지 못해 조립식 건축물로 된 성당에서 전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당 소공동체는 4구역 11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반은 1구역2반으로 현재 본당에서 소공동체모임에 참여하는 반원이 제일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매님들만 참석 한다면 다른 반이나 다름없겠지만 형제님들과 함께 하기에 참석자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처음에는 함께 참석하는 것에 대해 서먹해하고 낯설어 하였지만 점차적으로 한 명씩 참석하는 분

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형제님들과 함께하는 1구역 2반 소공동체 모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당에서도 사목위원으로서 본당 회장 및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반원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반은 반모임 후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형제애를 나눕니다. 많은 반원이 참석하기에 처음에는 음식 준비하는 부담을 느끼는 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반원들을 초대하는 것을 예수님 초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준비하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이름처럼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반을 만들어 가고 구역을 만들어 간다면 새로이 봉헌될 새 성전 건립에도 힘이 보태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공동체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리며, 반원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두 손 모읍니다.



〈 용원성당 1구역 2반 반원들 〉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